

“총상 후유증 안고 40년...언제쯤 진실 밝혀질까요”

5·18 시위 도중 1호 총상 피해 김영찬 씨가 맞는 5·18 40주년

당시 고교 재학중 귀가길에 시위 합류...군인이 쏜 총 오른쪽 배 관통 다섯번의 장 수술 심각한 후유증 남겨 10여년간 방황의 시간 38년간 광주·전남 부상자 발굴 활동...“가난한 부상자들 도움 필요”

“40주년을 맞은 지금도 5월이면 답답하고, 울화가 치밀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진상규명이 안되고, 발표명령자가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최초발포자가 첫 발표일이 20일이라고 우기는 걸 보면 화가 나죠.”

아스팔트에 불꽃이 튀었다. 총알을 아스팔트를 맞고 튀어나와 김씨의 오른쪽 배를 관통하고 왼쪽 엉덩이로 빠져나갔다.

“하체에 힘이 쏙 빠져다녀니 의식을 잃었어요. 마침 현장 근처에 있었던 공중보건의 정은택(현 원광대학교)씨가 저를 발견해 인근 외과병원으로 후송하고 응급조치해준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응급처치 후 전대병원으로 이송된 김씨는 장(腸)을 2m 가까이 드러내는 대수술을 5차례 받은 끝에 1980년 12월 24일 퇴원했다. 그 이후 40년 동안 끔찍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건강에 이상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골반에는 주먹만한 구멍이 뚫려 있고, 장이 늘 불편해요. 매일 같이 약을 챙겨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퇴원 후에도 김씨는 10여년 동안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다”고 한다. 공부에도, 취직에도 뜻을 잃고 방황했던 김씨는 1989년 한전에 입사한 뒤에야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참여했다. 1982년부터 5·18 부상자회 창단 직후 회원으로 활동해 왔다. 나주, 화순, 광산구(옛 광산군) 등에서 5·18 부상자들을 발굴하는 데 도움을 줬으며, 부상자회 감사로 15년 가까이 활동하기도 했다.

“부상자회, 구속자회, 유족회 등 5·18 피해자들 중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니다. 부상 후유증이 있는데도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이들도 많아요. 이들이 여성이라도 편히 살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들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김씨는 최근 조대부고 30기 동창 고(故) 박성룡 열사를 추모하고자 모인 기념탑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총무 역할을 맡기도 했다. 김씨는 “박성룡 열사는 유일한 조대부고 동기 사망자다. 나 또한 5·18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만큼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년퇴임을 앞둔 김씨는 퇴직 후에도 5·18 부상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활동을 이어갈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56세 이후 생존자 연금 제공, 부상자회 공법단체 전환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

“5월 광주는 시민들의 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과 큰 뜻을 새로운 세대에도 체계적으로 알려야지요. 민주정부가 집권하고, 진상규명위원회도 발족한 지금이 진정할 기회라고 생각해요. 광주와 5·18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 기대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산구청에 ‘윤상원홀’ 5·18 열사의 삶 기린다

홍상 부조물 설치...벽면에 투사회보·일기 등 자료 전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한 윤상원 열사를 기리는 공간이 광주 광산구청에 마련됐다.

광산구는 14일 7층 대회의실을 윤상원홀로 명명하는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광산구 출신인 윤 열사를 기리고 5·18 정신을 이어가자는 뜻을 담았다.

윤상원홀 외벽에 설치한 현판 아래에는 ‘시대의 들불’ 문구를 새긴 윤 열사 홍상 부조물을 설치했다.

윤 열사가 최후의 향정을 앞두고 ‘이제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들이 지금까지 한 항쟁을 잊지 말고 후세에도 이어가길 바란다. 오늘 우리는 패배한 것이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라며 청년에게 남긴 말을 함께 기록했다.

내벽에는 투사회보, 일기, ‘임을 위한 행진곡’

악보 등 윤 열사의 일대기 알 수 있는 자료를 전시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제막식에서 “윤상원홀은 1980년 5월 전남도청 앞 분수대와 같은 공간”이라며 “광산의 행정도 오월 정신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제막식에는 윤 열사의 어머니 김인숙 여사와 동생 윤태원 씨, 윤상원기념사업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자 항쟁 지도부 홍보부장이었던 윤 열사는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하다가 1980년 5월 27일 새벽 서른살의 나이로 산화했다.

광주북중·살레시오고·전남대를 졸업하고 나서 5개월간 은행 근무를 했으나 광천공단에 위장 취업하고 들불야학 강사로 활동하며 치열한 청년기를 보냈다.



1982년 황석영 소설가의 광주 북구 윤암동 자택에 모인 10여명의 문인은 윤 열사와 그 무렵 노동 현장에서 산화한 박기순(당시 21세) 열사의 영

혼결혼식에 헌정하고자 ‘님을 위한 행진곡’을 지었다. 광산구는 윤 열사 생가가 자리한 천동마을에 ‘윤상원 민주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산=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세아푸드와 ‘장애인고용 안정 릴레이 캠페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영근)가 지난 12일 장애인 표준사업장 농업회사법인(주)세아푸드와 ‘장애인고용 안정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장애인 일터를 지키고,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의 생산품 판매를 돕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수자원공사 영·섬본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5000만원 출연



한국수자원공사 영·섬본부(본부장 최동호·왼쪽에서 세번째)는 지난 12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5000만원을 출연하고 장성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장성군사회복지협의회와 ‘장성군 취약계층 물복지 실현을 위한 상생협력’을 맺었다. <수자원공사 영·섬본부 제공>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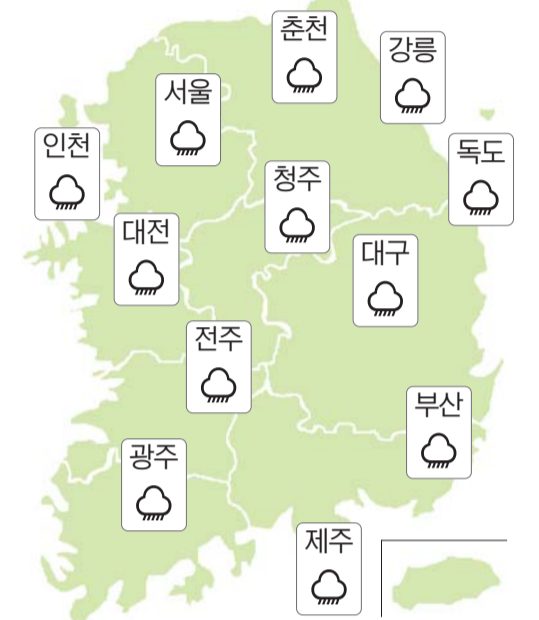
해돋이	05:29	달뜨기	01:49
해질	19:30	달짐	12:33

우산 챙기세요

고기압 영향으로 비오는 곳 있겠다.

광주	흐리고비	17/20	보성	흐리고비	15/19
목포	흐리고비	17/19	순천	흐리고비	16/18
여수	흐리고비	16/17	영광	흐리고비	16/21
나주	흐리고비	17/19	진도	흐리고비	16/20
완도	흐리고비	17/20	전주	흐리고비	17/21
구례	흐리고비	16/18	군산	흐리고비	17/21
강진	흐리고비	17/21	남원	흐리고비	16/18
해남	흐리고비	17/19	흑산도	흐리고비	14/18
장성	흐리고비	17/20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0.5~1.5	0.5~1.0	
	면바다(북)	1.5~2.5	1.0~2.0	
남해서부	앞바다	0.5~1.5	1.0~2.0	
	면바다(서)	2.0~3.0	1.5~2.5	
	면바다(동)	2.0~3.0	2.0~4.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0:45 14:19	08:18 20:31
여수	10:11 21:40	03:28 15:56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주의	보통	좋음

◇ 주간 날씨

16(토)	17(일)	18(월)
17/26	18/28	19/25
19(화)	20(수)	21(목)
14/21	13/22	13/24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신항호·정예자씨 장남 동열(마지초등학교 교사)군, 이영무(흑산도농어 중매인협회장)·이현숙씨 장녀 주연(문충중양초등학교 교사)양=16일(토) 낮 12시 40분 라페스타웨딩홀 4층 디아망홀.
▲구제길(세종요양병원 이사장·광주시 동구체육회장)·장하영씨 장남 영진군, 송하백·김명옥씨 장녀 수현양=23일(토) 오전 11시 라페스타웨딩홀 2층 열두채울.

알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아살선, 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

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람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과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

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홀덱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화장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휴연수당 지급. 전일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플래너지노새사(지역반)=사·군구 자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스마트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면 개강, 광주대성초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인생이모작 카운슬러=인생2막 생애재설계, 은퇴 신중론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아 모집, 심리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부음
▲김안순씨 별세, 이준서(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씨 모친상=발인 15일(금) 완도 대성병원 특2호실 061-553-1234.